

소련은 세계최대의 산유국이며, 동구권수출을 포함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石油수출국이라 할 수 있다.

IEA등 諸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공산권의 對西方輸出(CPE'S net export)은 中共의 日本輸出分을 제외하면 거의가 소련의 수출이라 할 수 있다.

소련의 石油수출 현황

소련의 對西方 石油수출은 85년이후 계속 증대해 왔는데, 특히 87年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대비 31%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출 증대는 소련의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으로 인한 생산증대와 同 경제정책추진에 소요되는 外貨수요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對西方石油수출은 산유량 이외에도 장기적 경제계획추진에 따른 外換수요증대(hard currency), 그리고 가스, 핵燃料 등의 代替燃料개발 및 에너지보존노력으로 인한 국내소비 억제, 동구권 수출억제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소련은 고르바초프서기장의 야심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서구의 장비·기술 도입을 위한 外환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소련 外환소득의 60%는 石油수출에서 얻고있다. 소련의 石油수출수입은 86년의 85億달러에서 油價안정과 수출증대로 87년에는 109億달러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向後에도 다른 수입원이 없는 이상, 소련의 外환 소득은 對西方 石油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곧 수출증대압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계획경제를 취하고 있는 소련의 石油생산은 철저한 목표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최근의 산업개편과 효율성증대 노력으로 87年 생산량(1,260萬b/d)은 목표를 20萬b/d나 초과하였으며, 90年 625~630百萬톤 목표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련은 현재 西카자흐스탄, 북극지역 유망油田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개발에서 대량의 原油가 증산되기 위해서는 서구의 최신장비수입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石油수출에 의존하는 外환소득이 필요하다.

向後 西시베리아地域의 활발한 개발과 효율성증대로 생산량은 목표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곳 지역에 대한 개발만으로는 대폭적인 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소련의 對西方 石油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국내 석유소비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은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외환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石油輸出을 增大시키기 위해 국내石油소비 억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石油소비 억제는 천연가스나 원자력 같은 石油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보존 정책에 의해 推進되

고 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최대 天然가스공급국이기도 한 소련은 풍부한 천연가스 생산으로 국내석유수요를 82년이래 9百萬b/d이하로 억제해 올 수 있었고 對동구권 石油수출도 160萬b/d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었다.

소련의 천연가스생산은 주로 西部 시베리아 북극지방에서 이루어지는데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시베리아 北極油田지대와 소련 중부 및 동구권을 연결하는 야심적인 大陸橫斷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다.

소련의 石油수출 추이

(단위 : 천톤)

	原 油		製 品		計	
	1986상반기	1987상반기	1986상반기	1987상반기	1986상반기	1987상반기
오스트리아	259	157	16	19	275	176
벨기에	1,445	2,395	624	403	2,069	2,798
캐나다	—	—	43	30	43	30
덴마크	387	345	84	44	471	389
프랑스	4,035	4,008	1,079	1,689	5,114	5,697
독일	1,847	2,341	1,596	1,269	3,443	3,610
그리스	1,646	1,961	3,809	2,846	5,455	4,807
아일랜드	1,020	987	85	72	1,105	1,059
아일랜드	—	—	173	139	173	139
아일랜드	—	—	43	34	43	34
이탈리아	3,579	5,356	228	478	3,807	5,834
일본	—	20	257	442	257	462
네덜란드	326	350	4,261	4,572	4,587	4,922
노르웨이	214	87	18	71	232	158
포르투갈	93	—	—	—	93	—
스페인	—	1,303	149	208	149	1,511
스웨덴	680	891	428	484	1,108	1,375
스위스	84	70	951	417	1,035	487
터키	94	130	119	108	213	238
영국	1,087	1,845	577	627	1,664	2,472
미국	151	80	120	173	271	253
小 計	16,947	22,326	14,660	14,125	31,607	36,451
나프타	—	—	2,441	2,598		
휘발유	—	—	660	386		
경유	—	—	8,494	7,686		
연료유	—	—	2,741	2,792		
기타	—	—	324	663		

이 工事が 완공되면 소련의 대동구 石油수출 및 국내 石油소비는 천연가스로 代替될 수 있으므로 對西方 석유 수출 餘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豫상된다.

그러나 소련정부의 야심적인 핵에너지확대 政策에도 불구하고 石油代替에너지로서 핵발전 전망은 천연가스처럼 밝지는 않다.

86年 체르노빌 핵발전 누출사고이래 핵발전 확장계획은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소련의 핵발전 확장계획에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소련국내 석유소비는 增大하게 되어 對西方 石油수출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핵발전 확대정책은 소련의 기본적 에너지정책으로서 지속될 수(총전력중 핵발전 비율은 현재 11.2%에서 금세기말까지 20%로 증대)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획의 진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내石油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에너지보존정책을 들 수 있다. 에너지보존 노력은 기타 自由世界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계획경제라는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그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에너지보존노력을 증가시켜 국내소비감소, 나아가서는 對西方 石油輸出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소련의 對西方 石油수출은 소련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인한 외환수요증대, 서부 시베리아지역의 활발한 탐사·개발과 효율성 증대에 기인하는 목표를 초과하는 증산, 천연가스등의 대체연료공급 확대로 국내 및 동구권 石油수요 억제, 효율성을 강조하는 고르바초프 경제정책하에서의 에너지보존 노력증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對西方 천연가스수출도 상당한 활기를 띄고 있다. 작년터키에 供給을 시작한 이래 향후 스웨덴, 스페인, 英國등의 서유럽국들이 잠재적인 소련의 가스수입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

소련의 石油 및 가스 생산·수출 현황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석 유 생 산(백만톤)	612.0	616.0	612.0	595.0	615.0	624.0
석 유 수 출(백만톤)	160.2	170.9	173.9	159.3	174.5	182.0
O E C D	68.9	77.9	81.2	67.5	77.5	84.0
기 타	91.3	93.0	92.7	91.8	97.0	98.0
가스생산(10억입방미터)	502.0	536.0	587.0	643.0	686.0	730.0
가 스 수 출	60.6	64.2	68.7	75.8	76.9	78.0
西 歐	28.0	28.6	32.0	34.7	35.3	36.0
東 歐	32.6	35.6	36.7	41.1	41.6	42.0

□ 石油圖書案内 □

精 油 設 備 高 度 化

HAND BOOK

—대한석유협회 기획부編—